8강 - 프랑스 누벨바그 (2)

누벨바그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작품을 심도깊게 분석해 봅니다. 뤽 고다르 감독과 프랑수와 트뤼포 감독의 두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뤽 고다르Jean-Luc Godard 감독은 1960년에 만든 <네 멋대로 해라>라는 작품으로 많이 알려진 감독입니다. 초기의 걸작 <비브르 사 비Vivre Sa Vie>(1962)를 통해서 작가의 세계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Vivre Sa Vie는 프랑스 말로 '그녀의 인생'이라는 뜻으로 '그녀의 인생 살이', '그녀의 인생을 살다'라는 식으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나나'라는 여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녀의 인생살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62년도 흑백 영화 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본격적으로 현대 영화가 시작하는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영화이고 시대를 넘어서 많은 감동을 줬던 그런 작품입니다.

현실을 알레고리화한 <비브르 사비>

이 영화를 한 마디로 정의를 하면 '정치 영화'일 수도 있고, '페미니즘 영화'-여성 인권 영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멜로 드라마는 아닙니다. 이 영화는 '나나'는 이름의 프랑스의 창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헐리우드식의 감상적인 멜로 드라마는 아닙니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영화입니다. '대안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누벨바그의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고전적인 양식을 부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랭 레네의 영화와 같이 형식적, 내용적인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선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요. 나나라는 주인공이 매춘부, 창녀이기 때문에 매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가난 때문에 할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되고, 이 여자는 마지막에 아무 이유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렇듯 표면적 이야기 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달 방식이 종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나나는 매춘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삶의 자세를 보여준 여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나의 매춘 이야기는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그것은 여성과 사회라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인공은 어쨌든 여성이니까요. 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 조건에서 여성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가의 실존적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 또는 그녀의 자유는 이미 사회의 어떤 방향에 의해서, 사회의 조건에 의해서 운명 지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 속에는 사회의 두 가지 구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부 구조는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 차별주의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차별 받는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돈을 벌지 못하면 생존해 나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두 가지 조건으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영화로서 정치 영화의 성격을 갖고, 여성 차별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여성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여성주인공은 종래의 교훈적이고 감상적인 여성주인공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그들 삶을 규정하고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역할로 그려집니다.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는 것 보다도 어떤 사회 속에서 이 여성이 살고 있는가를 보다 더 탐구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사회를 더 드러낸다는 것이죠. 종래에는 남성주인공의 희생자로서 여성주인공이 그려졌습니다. 이 영화도 표면적으로 보면 남성에 의해 희생되는 여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여성주인공 나나의 개인적 곤경을 뛰어넘어서 사회를 그리고자 했다는 점에서 브레히트의 예술 미학을 엿보게 합니다.

브레히트의 사회적 미학

브레히트는 개인이 스스로 개인의 운명을 해결해나가는 연극, 그러한 드라마보다는 사회의 운명적인 인간을 그렸죠. 인간이 사는 것은 곧, 사회의 결정된 조건에 따라서 생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인간을 결정한다'는 인간관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가 그러한 브레히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사회는 남성 가부장 질서의 사회입니다.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이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나나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는 것인데, 극복해 나아가는 개인의 특수성보다는 이 여성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두 가지 조건을 강조하고 있죠. 남성 가부장 질서의 사회와 물질 만능주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혹하게 기능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결국 여성 영화이고 정치 영화가 되는데요. 여성의 곤경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것은 사회 속에서의 규정된 그런 곤경스러운 위치입니다. 사회는 남성과 돈과 그리고 사랑이 부재하는 성-폭력으로 구성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이 영화를 정리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나의 이야기-창녀였다가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감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나라는 특수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보편적인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고다르 감독 자신의 심경을 담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다르 감독의 아내가 바로 이 영화의 여자주인공 나나 역을 맡은 안나 까리나인데요. 이 안나 까리나는 바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사회 속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과 배우라는 측면에서 사회를 반영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남성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인 고다르가 여성인 안나 까리나보다 더 우월하고, 또 남성중심적 사회이기 때문에 감독인 고다르가 배우인 안나 까리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남편인 고다르가 아내인 안나 까리나를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의 불균형한 모습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사에서도 동시에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자선전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고백', 이것이 바로 누벨바그 영화의 특성입니다. 자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영화에 대한 영화, 영화와 삶을 서로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반성적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누벨바그 영화인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개론적으로 배웠는데요. 바로 이 영화에서 고다르 감독과 아내이자 여배우인 안나 까리나-여주인공 나나와 같은 삶을 영화 밖에서 또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적 수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비브르 사비>의 스타일 분석

스타일적으로 특히 브레히트적인 미학이 충실히 반영된 영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브레히트의 기법을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낯설게 하기'라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거리두기', '소외 효과', '소격 효과'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것은 인물이나 사건이나 모든 영화적 장치들을 낯설게 함으로써 관객이 극단적으로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거리를 두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카메라가 나나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도 객관적인 거리를 둡니다. 이 영화에서는 인물의 클로즈업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롱테이크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쇼트가 3-4분 갑니다. 쇼트를 나눔으로 인해서 생기는 의식의 흐름, 즉 관객의 의식의 흐름을 조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관객은 영화에 몰입되지 않고, 영화적인 장치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보기 때문에 혼자 성찰하면서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브레히트의 '낯설기하기' 기법입니다. 이 영화 <비브르 사 비>는 종래 영화와 같은 드라마틱한 극적인 갈등이나 이야기 전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다르 감독은 이것을 "영화적 수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담담하게 기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필이 소설이나 희곡과 달리 담담하게 붓 가는대로 쓰는 그런 문학 양식인 것처럼 이 '영화적 수필'은 마치 기록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사건의 전개가 담담하게 진행됩니다. 종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극적인 영화를 많이 보다보면 식상할 때가 있죠, 지나치게 극적으로 짜여진 영화 같은 느낌이죠.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 편의 기록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가질 정도로 담담하게 서술되기 때문에, 헐리우드의 극적인 방식을 벗어난 대안적인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랭 레네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운드와 영상이 대비되어 대위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래 영화처럼 동화적으로(동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과 인간의 심리상태를 일치시키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의 현재적 심리와 일치하는 음악이 아니라 그 영상과는 다른 내면적인 사운드를 구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간을 갖교. 알랭 레네는 그것을 과거 시간의 사운드로 사용했다면, 고다르는 이 영화의 주제를 암시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영화적 소음을 사용한다든지 음악이 아닌 소음을 사용해서 잔혹한 사회의 조건을 암시하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고다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낯설

게 하기의 기법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작가예술영화를 실천한 트뤼포의 작품세계

고다르의 그런 정치성에 비해서 훨씬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대중적으로 친화력을 갖고 있는 프랑수와 트뤼포 감독의 영화 세계를 <아메리카의 밤La Nuit Americaine>(1973)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73년에 트뤼포 감독이 미국에 가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래서 제목이 '아메리카의 밤' 입니다. 이 영화는 트뤼포 감독의 1960년대 전성기-초기의 작품 보다는 좀 더 원숙한 경지에서 만든 후기 작품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벨 바그의 초기와 후기의 달라진 모습을 느껴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누벨바그는 60년대에 굉장히 정치적 격변을 갖게 됩니다. 68년 5월에 프랑스는 정치 사회적으로 개혁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누벨바그는 정치적 의식으로 재단합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고 헐리우드에 대항하는 영화인들의 정치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장 뤽 고다르가 정치 영화를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제도권 프랑스 영화계를 강타하고 비제도권 영화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며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프랑수와 트뤼포 감독은 제도권 내의 작업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대비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훨씬 따듯하고 부드럽고 상업적으로 친화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든 감독인데요. 서로 다른 정치관으로 인해서 이 두 감독은 누벨바그의 가장 대표적인 감독이면서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트뤼포는 대중 상업 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소위 대중 상업 영화 내에서의 '작가 예술 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감독입니다. 대중 상업 영화를 했다고 해서 이 누벨바그의 정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예술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세, 소위 '작가의 자세'죠. 이런 작가의 자세가 여전히 대중 상업 영화-공장식 영화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트뤼포는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내에서도 이러한 개인적인 창작을 해야한다는 믿음을 끝까지 실천했던 그런 감독이고요.

헐리우드 시스템의 계속적인 상륙, 또 68년 이후에 프랑스가 자각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침투하는 것에 더욱 더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자본주의 시스템 하부 구조가 상부구조인 영화를 구성한다는 믿음과 자극을 실천하게 됩니다. 영화를 통해서 감독들은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는 신념을 표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식에서 '작가'의 강한 정신성, 또 그 제작 방식이 각자의 스타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트뤼포는 미국에서 초청해 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프랑스 누벨바그 감독들이 경멸했던, 극복하고자 했던 미국의 영화산업계에서 손을 뻗

침으로 인해서 트뤼포가 헐리우드에서 <아메리카의 밤>이라는 아이러니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미국으로 가서 만든다 하더라도 프랑수와 트뤼포 감독은 초기누벨바그의 정신에 집착해서 영화에 대한 영화, 영화-삶을 반추하는 주관적이고 독특한 자서전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미국영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게 됩니다.

<아메리카의 밤>의 누벨 바그 정신

<아메리카의 밤>의 내용은, 미국에서 영화를 찍는 한 영화 감독과 영화 제작팀의 이야기입니다. <아메리카의 밤>은 영화 제작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트뤼포가 그동안 10여년 이상 해왔던 누벨바그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감독은 곧, 감독 자신이고 프랑수와 트뤼포 감독 자신이 주인공을 했습니다.

감독은 계속 반복되는 꿈을 통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왜 영화를 하게 됐고, 현재 감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자전적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영화적 인간-호모시네마티쿠스 라는 신조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화가 곧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고, 영화를 보면서 자란 한 인간이 영화를 찍게되고 삶을 반추한다고 할 때, 그 '영화적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는 한 마디로 영화와 그것을 만드는 동료들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것은 인간 관계뿐 아니라 영화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간의 이야기, 또 시스템의 이야기이고 이것들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영화가 인생보다 중요한 것인가?'가 트뤼포 감독이 이 영화 속에서 던지는 화두입니다. '영화와 인생은 어떤 관계인가?' 그때 트뤼포는 '영화가 과연 인생보다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인생 속에서 예술을 찾은 것이 아니라 2차 자료-영화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찾는 한 인간인데요. 수집가며 영화광이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부터 출발해서 영화감독이 되기까지 그리고 영화를 찍는 그 순간, 계속 과거의 강박관념과 같은 꿈들을 꾸면서 영화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한 인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등장 인물만해도 15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와 모든 스테프들이 다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는 주제 의식으로 일과 사랑, 영화와 인생,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와 프랑스 영화..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라는 결과물, "영화를 만들어 낸다"는 스타 탄생류의 헐리우드 영화적인 것이 아니라 영화 과정 자체를 삶의 과정으로 보는 감독 특유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영화와 다른 프랑스 누벨바그의 특징입니다.

<아메리카의 밤>의 스타일 분석

이 영화는 누벨바그의 형식적인, 기법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면서도 역시 극적이지 않습니다.

영화의 마술성을 드러내는 기술적인 기교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서 낭만주의적인 전통을 거부합니다. 영화는 낭만주의적인 전통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것은 관객으로 하여금 어떤 환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다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고다르는 극단적으로 브레히트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파괴를 했다면, 트뤼포는 트뤼포적인 방식으로 "탈신비화" 시킵니다.

영화 제작이라는 것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공장에서 마술적으로 (영화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신비한 과정 같지만, 트뤼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마술과 같은 트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탈신비화시킵니다.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등장 인물이 15명이라는 것은 종래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한 두명의 주인공이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에 비하면 복잡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를 고루 동등한 비중으로 서술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가 가장 존경해 마지않던, 40년대 50년대에 누벨바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감독 장 르누아르의 전통과 기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뤼포는 영화와 관객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합니다. 이 영화에서 영화와 관객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 등장인물의 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여자를 이해하는 제스쳐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놓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트뤼포 감독을 어떤 평론가는 "여자와 어린이와 영화를 사랑한 인간"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뤼포 감독이 갖고 있는 것이 고다르의 정치 의식만큼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작고 소박한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 가족 공동체가 결속한다는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는 집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고로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졌던 감독입니다. 고다르에 비하면 소박한 의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다르와 같이 "내용은 곧 형식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헐리우드와 싸우는 것 자체가 곧 정치적 행동이라고 믿었고, 내용만큼 형식도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다르와 트뤼포의 비교

고다르와 트뤼포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크게 보면 고다르는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이론으로 무장이 돼있고, 장르를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파괴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트뤼포는 장르를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멜로드라마면 멜로드라마, 가족드라마면 가족드라마, 러브스토리는 러브스토리로, 탐정물이면 탐정물로 그대로 관습을 이용했습니다. 변형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통의 힘을 부드럽게 수용합니다. 그 장르적 영화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고다르를 논문을 쓰는 학자라고 볼 수 있다면, 트뤼포는 소설가입니다.

영화와 관객의 관계, 영화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관계를 중시하므로 인해서 허구적인 질서를 여전히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에 반에서 고다르 감독은 영화와 삶의 관계에 있어서 파격적인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영화가 마지막에는 영화라는 이름마저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경지까지 몰고가죠. 트뤼포는 영화 안에서 삶을 봐야하고 "삶이 곧 영화"라는 등식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허구적인 틀을 부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 관객의 호위 속에서 항상 존재했던 감독이 트뤼포이고, 고다르 감독은 결국 비제도권 영화의 길을 가게 되죠.

누벨바그에는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알랭 레네와 장 뤽 고다르, 그리고 프랑수와 트뤼포 감독을 중심으로 누벨바그의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이 누벨바그는 이후에 헐리우드 영화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말하자면 60년대 이후에 헐리우드가 급격히 변화되는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준 감독들이고 그러한 영화사조입니다. 또 유럽-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태리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아시아, 중남미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누벨바그는 세계영화사에 있어서 현대 영화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화사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손꼽히는 사조이죠. 네오리얼리즘과 더불어 누벨바그는 현대영화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영화 사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